



다음 세계로의 통로

야마기시즘과 스즈카 에즈원 공동체

글 유상용 - 공동체 연구가

나는 1990년 봄 처음 야마기시즘을 접한 뒤 92년부터 ‘야마기시즘 실현지(공동체)’에 참여하였고 2009년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떠날 때까지 여러 활동을 함께해 왔다.

1990년 봄 대학에 복학한 나는 사이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관련된 곳을 찾아다니다 ‘실현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곧이어 「야마기시즘 특별강습연찬회(이하 특강)」에 참가하였다. 특강에서 나는, 이제껏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적 탐구를 해가는 가운데, 아집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그 뒤에 찾아오는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신선한 충격 속에서 보냈다. 특강은 야마기시가 고안한 독특한 방법들을 통해 인생과 사회의 진실한 모습에 대해 눈뜨게 하는 프로그램이며, 명상이나 종교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지적인 탐구라 할 수 있다.

야마기시즘과 세계급진혁명단 야마기사회

국내에서 야마기시즘은 주로 공동체와 관련해 알려져 있지만, 야마기시즘의 목표는 자족하는 작은 공동체가 아니고 ‘최종적인 세계혁명’이다.

야마기시즘이란 일본인 야마기시 미요조(1901~1961)가 주창한 사상을 말한다. ‘세계급진혁명단’이란 무시무시한(?) 말은, 1959년 당시 야마기사회가 목적하는 활동을 급속히 실행하자는 취지로 붙인 이름이다. 그렇지만 야마기시가 지향하는 것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에 기반한 ‘지적(知的)’혁명이고 현실 사회를 파괴하지 않고 행복사회를 실현하는 ‘평온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시민교육은 정보와 지식 관련 내용에 치중되어 있다. 스스로 고민하고 각성하는 ‘깨달음과 성찰’이 있어야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세상도 변할 수 있기에 이번 특집을 준비했다. - 편집자 주

그가 말하는 지적 혁명의 내용은 '인류가 바라는 행복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사회 실현의 구체적 방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구현방식(具現方式)」에 의해 인간의 지혜를 모아 실현해가면, 전 세계가 참된 인간성에 맞는 이상사회로 반드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마기시회란 야마기시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모임으로 1954년에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는데, 회의 취지는 '자연과 인위, 즉 천·지·인의 조화를 도모하여, 풍부한 물자와 건강과 친애의 정으로 가득 찬 안정되고, 쾌적한 사회를 인류에 가져오는 것을 취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 세계의 두뇌·기술을 집합하는 연구 기회를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인류가 물질양면으로 풍부하게 되어 남을 침범할 필요가 없는 협력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야마기시즘 특별강습연찬회」에 대하여

특강에서는 야마기시가 쓴 '야마기시즘 사회의 실태(부제: 세계혁명 실천의 서書)'를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가 그리는 이상사회의 모습과 그 실현 방법이 적혀 있다. 그것을 읽고 이해해가면서 동시에 그가 짜 놓은 묘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참모습에 대해 차차 깨닫게 된다. 또한 특강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간다.

1. 어떠한 경우에도 화(怒)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
2. 영위(零位)에 선다.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위, 가문, …… 아(我), 시간, 생명 등에 집착하는 마음을 풀어놓고 영(零)의 몸 가벼움에 서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구명(研鑽)〈연찬〉이 해한다.
3. 연찬은 모든 생각하는 법의 기본이고 모든 실행의 근본이기도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사고하며
4. 자타일체(自他一體)의 리(理)를 연찬하여 이것이 진실사회(親愛의情)로 가득 찬의 근본이념이라는 것을 체득한다.
5. 자타일체로 변영하려고 하는 이론, 방법, 실행은 어떨까 하고 연찬한다.

※ 이 목표는 기간 중 계속 의식하고 확인해 가며 진행된다.

특강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자신과 사회의 실태, 불행의 원인과 그것이 제거된 행복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상사회를 만드는 방법까지를 압축해 넣은 것이다.

도입부는 자신의 '생각'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다. 목표 2처럼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단정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 무언가에 집착하여 '고정'되게 사물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없이 사물을 볼 준비가 되어야하는 데 그것을 '영위에 선다.'라고 했다.

목표 2에서는 '영의 몸 가벼움에 서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구명'하는 것을 '연찬'이라고 했다. '연찬'이란 야마기시즘의 방법론의 키워드이다. 인간의 생각이란 옳고 그름을 수없이 반복하여 판단해 오며 쌓은 것인데, 한번 옳다고 생각한 것은 여간해서는 정말은 어떤지 검토되지 않은 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옳다,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면, 그 다음은 '감정'에 대해 살펴본다. 무엇이, 누군가가 '싫다'는 감정은 어떤 것인가? 자기가 한번 싫은 것이라고 정하면 그것은 싫은 것인가? 싫다는 것 역시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생겨난 것은 아닐까?

그 다음은 감정의 극단적인 모습 중의 하나인 '화(분노)'에 대해 살펴본다. 목표 1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이다. 야마기시는 왜 이것을 목표 1로 했을까? 이것은 개인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아주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내면의 갈등이나 개인 간의 싸움, 전쟁의 원인이 되는 '화'에 대해 검토해 가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부자유하게 묶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검토해 간다. 인간 사회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률, 규칙, 의무 등에 스스로가 묶여서 움짱달짝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돈이나 소유 관념도 그런 고정관념이 사회화된 한 예일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간다.

그렇게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풀어놓고 자신도, 사물도 제로에서부터 검토해 가는 것을 연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 3은 '연찬(研鑽)은 모든 생각하는 법의 기본이고 모든 실행의 근본이기도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사고하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물을 검토해가면 세계의 참된 모습이 보여 온다는 것인가? 야마기시는 그것을 목표 4에서 '자타일체'라고 표현했다. 현상에서는 나와 남으로 분리되게 보여 대립·갈등하는 모순된 세계지만 본질에서는 나와 남이 한 몸이라는 것이 참된 이치(理)가 아닐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연찬하여 진실 사회의 근본이념임을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이언스 스쿨의 코스 모습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풀어놓고
자신도, 사물도
제로에서부터
검토해 가는 것이
연찬



스즈카 컬처 스테이션 어린이 문화제

특강의 후반에서는 야마기시가 그리는 이상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인간의 특징인 지능과 사용 방법, 인간의 불행의 원인과 그것을 제거하고 행복사회를 실현하는 이론과 방법 등에 대해 연찬한다.

야마기시는 집약된 일주일의 특강을 통해 한 사람이 개별·대립적인 사람에서 일체·조화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사회가 일체·조화의 사회로 대전환되는 '다음 세상으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야마기시즘 실현지는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등에 있고 특강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정체기를 맞고 있다고 보여진다.

스즈카 에즈원 공동체와 사이언스 스쿨, 사이언스 연구소

1990년대 말, 야마기시 실현지 내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야마기시즘 자체를 재조명하는 연구 기회를 가지고 변화를 모색하였지만 실현지 내에서는 여의치 않게 되자, 2000년도 초 야마기시회를 떠나 스즈카(鈴鹿)라는 도시에 모여 새로운 사회 실험을 시작하였다.

50가족 정도가 함께하여, 생계는 각자가 해결해 가면서도 본질적인 연찬만은 지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05년 즈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집단적인 자각이 있었고 그 뒤 약 3년간에 걸쳐 사회적인 시도를 구체화했다고 한다. 그들은 그 시도를 통해 성인 200명 정도가 서로 네트워크하여 이루는 개방형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에즈원(as one) 커뮤니티'라고 이



스즈카와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

름 붙였다.

에즈원 커뮤니티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소와 스쿨이 있다는 것이다. 사이언스 연구소는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요소의 해명이나 방법의 고안, 새로운 사회 조직의 연구나 운영 요소의 해명 등 커뮤니티 활동의 나침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이언스 스쿨은 남을 탓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인간으로 되기 위한 사고 방식과 사는 법을 검토하며 서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이다. 스쿨과 연구소와 커뮤니티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스쿨과 연구소라는 기반을 통해 무리 없는 방법을 찾아내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

사이언스 스쿨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코스들을 소개하면 기초 코스로서 마이 라이프 세미나, 내관(內觀) 코스, 자신을 알기 위한 코스, 자신을 보기 위한 코스, 일상화 레슨이 있고, 심화 코스로는 인생을 알기 위한 코스, 사람을 듣기 위한 코스, 사회를 알기 위한 코스가 있다.

마이 라이프 세미나와 감상문

'마이 라이프 세미나'는 '특강'을 발전시켜 참가자가 일상에서 활용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6개월에 1회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참가자의 감상문 일부이다.

이번에 깊이 있게 고민한 것이 있다면 검토라는 말이다. 나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느끼고 생각



스즈카의 지역과 함께하는 농산물 직매장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컵인가? 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등 일상에서 쉽게 생각해 버리고 단정해 버린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첫날을 걸도는 느낌으로 보내고, 둘째 날 오후야 검토한다는 느낌이 무엇이지 조금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진행자가 하나씩 테마를 주고 그것이 무엇

일지 생각해보라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은 이런 것일 거야."라고 단정 짓는 나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럴 거야 하고 습관처럼 자동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자, 각각의 테마를 떠올릴 때 먼저 드는 생각을 뒤로 미루고 테마의 주제 자체에 접근해 생각하다 보니, 작게나마 검토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단순히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라도 깊이 있게 고민해 '관'하는 훈련은 참 '나', 참 '사회'를 검토해 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이라이프세미나의 가장 큰 힘은 검토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는 것 같다. 검토하는 삶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에즈원 커뮤니티는 연구소와 스쿨을 기반으로 여러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지역사회 만들기로는 스즈카 컬처 스테이션, 생태 활동, 지역 통화 등이 있고, 산업으로는 도시락 가게, 농업회사, 부동산회사 등이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생활을 하나로 이어주는 커뮤니티 생활상담센터, 마음상담센터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활동이 이어져서 '하나로 이어진 경제'의 바탕 위에 사이좋은 한 가족으로서 주거·생활용품 등 무엇이든 자유롭게 유통하고, 누구나 풍요롭고 안심하며 사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야마기시 실현지도 에즈원 커뮤니티도,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소중한 실험이다. 이 실험의 과정에서 우리가 터득한 것은 무엇일까?

- 좋은 시스템의 사회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성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정체된다.
- 인간 자신의 본질과 사회의 참된 모습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가 미약하다.
- 사람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 기구·제도를 만들자. 등이라고 생각된다. 관심 있는 분들의 계속되는 연구와 실현을 기대한다.

한 사람이 일체·조화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사회가 일체·조화의 사회로 대전환되는 '다음 세상으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겨냥